

# 한국법제연구원, 2021 K-LAW 포럼 개최



- 7월 8일(목), 9일(금) 양일간 온라인 화상회의로  
'해외 한국법 연구와 교육의 현황과 쟁점(Current Issues in Korean Legal Studies and Education)' 주제로 2021 K-LAW 포럼 개최
- 유럽, 미국 동부, 미국 서부 및 하와이의 3개 세션으로 구성
- 올해 개최 10주년 맞아 축하와 관심 이어져

한국법제연구원은 2021년 7월 8일부터 9일까지 양일간 2021년도 K-LAW 포럼을 개최하였다. 올해 K-LAW 포럼은 개최 10년차를 맞이하여 그간 포럼에 참여해온 많은 국내의 전문가들의 축하와 관심 속에서 개최되었다. 비록 COVID-19의 여파로 인해 작년에도 온라인으로 개최되었으나, 한국법제연구원 유튜브 계정을 통해 포럼이 실시간으로 송출되어 많은 참여자들의 시청과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2021년 K-LAW 포럼은 “해외 한국법 연구와 교육의 현황과 쟁점(Current Issues in Korean Legal Studies and Education)”을 주제로 하여 총 3개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세션은 지역별로 각각 유럽, 미국 동부권, 미국 서부 및 태평양 지역 세션으로 구성되어 각 지역 한국법 연구자들의 발제와 국내 연구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 백영주  
✉ 한국법제연구원 기획조정실 대외협력홍보팀 연구원  
✉ [youngju@klri.re.kr](mailto:youngju@klri.re.kr)

한국법제연구원 김계홍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포럼을 화상으로 개최하게 되었으나 유럽, 미국 서부, 미국 동부에 이르기까지 세계 곳곳에서 한국법 연구를 수행하는 여러 전문가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온라인으로 자리를 마련하고 연구 성과를 나눌 수 있다는 점이 뜻깊다고 전했다.

한국법제연구원 제10대 원장을 역임한 김유환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K-LAW 포럼 개최 10주년 축하영상을 통하여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발전시킨 대한민국의 과거 경험을 법제라고 하는 틀, 법경제학과 법사회학적 연구의 틀 안에 담아보고자 시작했던 세계 한국법학자 대회가 현재의 K-LAW 포럼으로 발전한 것에 감회가 남다르다고 전하며 세계 각지에 있는 전문가들의 협업을 통하여 한국법 연구를 더욱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12대 한국법제연구원장을 역임한 이익현 목원대학교 부총장은 K-LAW 포럼을 비롯하여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법제교류지원사업은 한국의 법제를 선진국과의 교류를 통해 한층 더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한국의 제도 발전과 법적 우수성을 기반으로 하는 한국의 발전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세계 법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한국법제연구원이 이와 같은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포럼은 양일간 한국법제연구원 최지연 연구위원의 주재로 진행되었다. 7월 8일 목요일에 개최된 제1세션은 유럽지역의 한국법 연구자인 Pablo Sanz Bayon 코밀라스 교황청대학교 교수와 Birgit Daiber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각각 기술법과 디지털 비즈니스에 관한 한국과 유럽의 연구 및 정책, 한-EU 자유무역협정의 근본적 자유에 대한 WTO-EU법과의



개회사를 진행하고 있는 김계홍 원장



발제 중인 김갑래 연구위원(자본시장연구원), 사회 중인 최지연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비교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였고,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과 오선영 송실대학교 교수가 각 주제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Pablo Sanz Bayon 교수는 현재 IT 규제와 디지털 비즈니스에 존재하는 한계점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과 유럽의 디지털마켓 규제에 대한 법제적 발전 필요성을 비롯해 교육 및 사회문화적 관계 강화 및 경제적 협력을 강조하였다. Birgit Daiber 교수는 한-EU FTA의 근본적 자유에 대해 상품, 서비스, 인력의 큰 틀에서 WTO, EU법과 비교대조하여 설명했다.

이튿날 진행된 제2세션에서는 미국 동부 지역의 한국법 연구자들이 한국법을 현지에서 교육하고 연구한 성과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Robert Joonho Rhee 플로리다대학교 레빈법과대학 교수는 풀브라이트 학자로서 미국 법을 교육하고 한국법을 연구하는 동안의 경험을 공유하며 한국법 연구만의 특징에 대해 논하였고, 노정호 컬럼비아로스쿨 한국법센터장은 미국 및 한국법에 따른 북한의 인권보호에 대해 발제하였다. Lincoln Davies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법과대학장은 국제적 법률 연구 수행에 대한 전반적인 견해를 나누었으며 이어진 토론에서는 원재천 한동대학교 교수와 세 명의 발제자들의 매우 활발한 의견교환과 질의응답이 이어졌고, 한국시간으로는 비교적 이른 시간에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참석자가 실시간으로 시청하여 뜻깊은 논의가 진행되었다.

같은 날 이어진 제3세션에서는 미국 서부 및 태평양 지역의 한국법 연구자들의 발제와 국내 연구자들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김성은 UC어바인 로스쿨 교수는 기업 이사회 구성의 특례 규정에 대한 발표와 견해를 제시하였고, 이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접근법에 대해 비교 설명했다. 하와이 대학 한국학센터장이자 유엔 인권이사회 강제실종실무그룹 의장인 백태웅 교수는 한국재산법의 비교법적 특징에 대해 다양한 사례와 함께 상세히 논했다. 국내 토론자로는 김정연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현수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원장이 각 주제에 대해 발제자와 심도 있는 토론을 주고받았다.

한국법제연구원의 K-LAW 포럼은 해외의 한국법 연구 활성화 및 수요 진작을 목표로 2012년부터 매년 개최되어왔다. K-LAW 포럼은 그동안 미국 워싱턴 아메리칸 대학교 로스쿨, UC버클리로스쿨과 하와이로스쿨 등지에서 개최된 바 있으며, 폭넓은 한국법 연구자들과 네트워크를 맺으며 한국의 최신 법제 현안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고취하는데 기여해왔다. 2021년도 K-LAW 포럼은 그간 중점적으로 교류해오던 미주지역 한국법 연구자만을 대상으로 국한하지 않고, 그 지역적 범위를 확대하여 유럽 등에서도 한국법 연구자를 발굴해 해외 각지의 한국법 학자들이 상호 간 연구 교류를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저변 확대를 모색하였는데 그 의미가 크다. 한국법제연구원은 향후에도 K-LAW 포럼을 통해 유럽과 아시아, 남미 등으로 한국법 연구 저변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한국법제연구원은 더욱 체계적으로 국제사회에 한국법을 알리고 한국의 입법경험을 공유하기 위하여 2020년부터 K-LAW Academy(한국법 아카데미)를 신설하여 해외 정부부처, 공공기관, 연구소 및 학교 등을 대상으로 국내 초청 한국법 연수 및 해외 한국법 특강을 제공하는 등 한국법 위상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